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광주인권상 수상자  
오월정신을 말하다

레닌 라구와니쉬  
(인도·2007년 수상자)

양까나 날라빠이짓  
(태국·2006년 수상자)

5



인권운동가 레닌 라구와니쉬씨가 인도 한 소도시에서 카스트 제도 철폐를 위한 집회를 연 뒤 대중들에게 철폐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레닌 라구와니쉬 제공>



양까나 날라빠이짓이 최근 태국에서 라오스 '농촌 빈민의 아버지'로 불리는 쏘바스 쏘폰씨의 실종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쏘바스씨는 2015 광주인권상 특별상 수상자다. <양까나 날라빠이짓 제공>

## “인권 신장 목마른 亞에 본보기 5월 광주 항쟁은 인도에 이정표”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시민들의 희생으로 일궈낸 민주화운동의 결실이다. 이는 인도는 물론 민주화와 인권 신장에 목마른 아시아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인도 인권운동가 레닌 라구와니쉬(Lenin Raghuvanshi)씨는 지난 25일 광주일보와 이매일 인터뷰에서 5·18의 의미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군부독재의 서늘이 퍼렸던 1980년. 당시 광주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5월 항쟁이 없었다면 한국 민주화도 그만큼 더딜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지난 1995년 불가촉천민(달리트·Dalit)의 인권을 보호하고 카스트 제도를 타파하기 위해 인권감시위원회(PVCHR·People's Vigilance Committee On Human Rights)를 설립한 뒤 '신(新) 달리트' 운동 등 민주·인권운동을 꾸준히 펴고 있다.

그는 인도의 불평등한 계급제인 카스트제도 피해자와 3500명 이상의 채무

노동 아동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등 인도의 민주화와 인권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현재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 타파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카스트 제도는 민주화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인권조차 묵살하는 인권탄압의 도구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집회·시위 현장에 나갈 때마다 광주의 5월을 예로 든다고 한다. 카스트 제도에 신음하고 있는 인도의 카스트제도 피해자들에게 계급사회의 폐해를 알리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그는 “5·18은 정의를 기초로 한 시민의 저항운동이었다. 독재 정권이 도입한 침묵의 문화를 거부했고 비민주적인 폭력은 모든 민주적인 요소를 방해했다”며 “5·18은 인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와도 같다. 민주화는 어느 한 사람의 강요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

니라 대중들이 힘을 합쳐야만 가능하다. 이것을 일깨워준 선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배제와 관련해서 “우리로 기업 파시즘 영역 아래 상당한 억압을 받고 있다. 외국 NGO단체에서 지원해준 지원금조차 국내 NGO 단체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인권운동가를 향한 공격도 흔하다”라며 “정의는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광주시민들이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피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카스트 제도 타파 공동체와 공산주의 파시즘 피해에 따른 소수 공동체, 빈민공동체 등을 한데 모아 민주화를 이룩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전력을 쏟을 것”이라며 “인도도 5·18을 모델 삼아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인도의 사회적 부조리로 차츰 없어지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시민 만이 변화 이끌 수 있다” 태국 민주화 ‘광주 정신’ 접목

“광주시민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작 다른 아시아 나라 사람들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배우느라 여념이 없는데 말이죠.”

양까나 날라빠이짓(아·Angkhana Neelapaijit)씨는 지난달 26일 광주일보와 이매일 인터뷰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태국의 인권운동가들 사이에서 ‘광주 전도사’로 명성이 높다. 지난 2006년 광주인권상 수상 이후 태국의 민주화에 광주정신을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004년 태국 경찰에 의해 실종된 인권변호사 솜차이 날라빠이짓의 아내로, 잦은 살해 협박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진상규명과 국가 폭력 희생자들을 위해 애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자국 내에서 ‘평화를 위한 정의재단’(JFPF·Justice for Peace Foundation) 소속으로 태국의 민주화와 인권신

장을 위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태국 방콕에서 군사정권에 맞서 싸우며 5월 항쟁을 소개하는 등 광주의 5월을 알리는 뜻깊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는 또 자신이 몸담고 있는 ‘JFPF’에 광주정신을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국가 폭력 희생자들을 위한 진상 규명과 정부 정책의 부조리, 경찰의 탄압 등 민주·인권운동에 전념하고 있다. 정부의 협박도 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시민들이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흔쾌히 몸을 던졌다는 것을 알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광주정신은 태국 시민들에게 많은 용기를 주었다. 시민만이 진정한 (민주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5·18 왜곡 및 폄훼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광주 시민을 비롯한 세계의 많

은 이들이 5·18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 일부 단체의 왜곡은 광주시민들이 이뤄낸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의도”라며 “광주시민들이 극복해 내리라 믿는다. 크게 걱정할 사안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태국 민주화의 현 주소에 대해 언급했다.

태국은 현재 인권운동가들이 거리에 서 손가락 세 개를 펴보이거나 서서 책을 보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 행위가 정부 정책에 반하는 저항 운동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난 수년 간 태국에선 수 차례에 걸쳐 민주화운동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수 많은 희생자들이 속출했지만 바뀐 것은 없다”면서 “태국 시민들은 독재에 맞서 싸웠지만 진정한 민주화를 이뤄내지 못했다. 민주주의와 정의의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다. 인권·정의·평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카스트제 철폐·불가촉천민 교육 앞장

#### 인도 인권감시위원회

인도의 인권감시위원회(PVCHR)는 지난 1995년 인도 북부지역 우트라 프라데시(Uttar Pradesh)주 바라나시(Varanasi)에 거주하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시인·역사가 민중음악가로 등으로 구성된 이 단체의 설립자는 인도 인권운동가 레닌 라구와니쉬(사진) 박사와 아내 시루티 나구와반쉬(Shruti Naghuvanshi) 여사다.



레닌 라구와니쉬

회원 수는 5000명. 이들 중엔 경찰에 의한 고문 희생자 3000명이 포함돼 있다. ‘PVCHR’의 주요 활동은 인도의 불평등 계급제인 카스트

제도 철폐다.

카스트 제도는 지난 60년 전부터 금지 운동이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이 제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PVCHR’는 특히 자국 내 빈민들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식량 확보 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바라나시 지역 불가촉천민 계급 아이들을 위한 초등학교를 하고 있다.

‘PVCHR’은 또 무슬림을 확대하는 경찰 탄압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경찰탄압 반대운동은 EU(유럽연합) 등 경찰의 고문 희생자들의 모임 연구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이 운동은 고문 생존자의 자활을 돕는 실질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PVCHR’은 지난해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주제의 광주비엔날레 국제 심포지엄에서 ‘인도 민주주의의 위기와 카스트 제도’라는 보고서를 발표, 참가국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 인권변호사 남편 실종에 인권운동가 변신

#### 양까나 날라빠이짓

태국 인권운동가인 양까나 날라빠이짓씨는 자국에서 ‘인권 옹호의 선두자’로 통한다.

그녀는 지난 2003년 남편이자 인권변호사인 솜차이 날라빠이짓이 실종되면서 인권운동가로 변신했다. 지난 2003년 태국 남부지방에서 의사·노동자 등 이슬람 무장단체인 ‘제마 이슬라미야’(Jemaah Islamiyah) 소속 무슬림 4명이 시위를 주도했는데, 솜차이 날라빠이짓이



양까나 날라빠이짓

이 사건의 변론을 맡았다.

이후 경찰 등에 의해 위협과 협박을 받아오던 남편은 지난 2004년 3월 24일 태국 방콕 교외의 한 호텔에서 한 차량에 강제로 태워져 실종됐다.

남편의 행방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양까나 날라빠이짓은 남편 실종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경찰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

이지 않았다. 이후 그녀는 남편 실종 사건 뿐만 아니라 국가 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등 인권운동가로 변신했다.

그녀는 지난 2006년 ‘평화를 위한 정의 특별 조사 위원회’(WGJP·the Working Group on Justice for Peace) 설립한 뒤 2009년 ‘평화를 위한 정의재단’(JFPF·Justice for Peace Foundation)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JFPF’의 장인 그녀는 헌법에 명시된 인권이 법에 의해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녀가 몸담고 있는 ‘JFPF’는 태국의 인권 향상과 정부의 폭력에 의해 희생된 가족들의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박기웅기자 pboxer@

**이태리가구**

**명품소파**

**더롭침대**

**가구빌딩**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http://www.hong79.com) 신상품 매주 입고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